

교과서 자유발행제 정착에 머리 맞대

오늘 교육부 주관 '제3차 교과서 개선 포럼' 전주서 개최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주최하고,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제3차 교과서 개선 포럼'이 오늘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교과서 자유발행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 논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을 비롯한 충청·전라권 학교 교원 및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은 박창인 부산대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한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광우 센터장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교과서 제도 변화'를 주제로, 경기 삼일상업고 허진만 교사는 '교과서 선택 폭이 넓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는다. 지정 토론자로는 경기도군포의왕고 육지원청 지명숙 교육장과 이병득 대전 동아미이스터고 교사가 참여한다. 지 교육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적인 운영 및 교과서 활용 사례'에 대해, 이 교사는 '학습자 중심 교과서 개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유토론의 시간도 마련된

다. 강연자 및 현장 교사,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고교학점제·정부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자유발행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교과서 자유발행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 담당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소외지역 학교의 교육 경쟁력 제고

전북교육청, 어울림학교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어울림학교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8~29일 무주·진안·장수 어울림학교(연계학교) 교감과 14개 교육지원청 마을교육 공동체 담당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어울림학교 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마을 체험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농어촌 마을의 자원을 중심으로 농어촌 학교의 전반적인 흐름과 농어촌 마을의 활성화 구조를 이해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 농어촌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중간관리자의 상호 대면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 운영의 리더십을 키워 향후 상시적 정보공유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한 지속적인역량 협의체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일차에는 진안 씨없는 꽃밭 마을, 무주 솔다박마을과 명천물살마을을

방문하며, 2일차에는 무주 치복삼베마을, 무풍송지 등을 방문해 마을교육공동체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고 2020년도 어울림학교 운영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을의 역사와 전통, 공동체 문화, 유·무형 자원 활용으로 어울림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어울림학교 정책 개선 방향 설정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소외지역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울림학교'는 김승환 교육감이 2015년부터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 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를 일컫는다. 어울림학교 유형은, 공동통학구형, 작은학교협력형, 초·중등학교 연계형, 학교-마을 협력형 네 가지 유형으로 학생들에게 삶과 연계된 배움을 주고 자존감을 키워주며 마을교육과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기계공고, 폭력없는 준법우수학교 선정 쾌거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안석태)는 지난 26일 전주시방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2019 한마음대회' 및 '제17회 준법우수학교, 준법 우수업체 시상식'에서 준법우수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교사에는 박종배 학생안전지원부장, 준법우수학생에 2학년 장우빈 학생이 뽑혔다. '2019한마음대회' 및 '제17회 준법우수학교, 준법우수업체 시상식'은 군산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군산기계공고는 1학년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며 형제애를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감 선생님들은 부모님과 같은 역할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준법우수학교 선정으로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박종배 학생안전지원부장은 "아침 일찍 학교에 출근해 학생들의 등교와 하교까지 지도하는데 번뜩이 없도록 학생부 선생님들의 지도가 있었으며, 또 학생 자치회의 자발적 노력으로 학교의 청결 및 학생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학교폭력의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담을 지속한 결과 돈독한 사제시간을 만들어 근대 2~3년간 학교폭력을 한두 건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며, "이러한 결과는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석태 교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 학교폭력은 중요해결 사안이었다"며, "그러나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가 됐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풀아내는 것은 의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국 지역학생들의 축량 역량을 겨루는 첫 경진대회가 28일 전주비전대학교 드림관 및 교내 일원에서 열렸다.

4차산업혁명시대 공간정보를 선도하다

전주비전대, 공간정보 캡스톤디자인·축량경진대회 성료

전국 지역학생들의 축량 역량을 겨루는 첫 경진대회가 28일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드림관 및 교내 일원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도내 31개 산업체와, 국토교통부, 산업진흥원, 전북도청, 전주시를 비롯한, 대구과학대, 인하공업전문대 등 지역별 거점대학 교수 및 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진행된 '제1회 공간정보 캡스톤 디자인 및 축량 경진대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 융합기술 교육 확산을 위해, 공간정보 관련 중소기업과 산학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실무기술 능력 함양 및 산업체 구인

구직 창구 마련을 위한 행사였다.

이날 경진대회는 고등부·대학부 축량경진대회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드론 등 4차산업혁명시대 공간정보의 창의융합작품 제작 및 전시, 중소기업 31개 업체와 함께 하는 공간정보 신기술 부스 운영, 산업체 초청 취업 특강, 연계고교생 초청 입시 홍보 및 취업 알선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른 아침부터 진행된 고등부·대학부 축량경진대회는 공간정보특성과 학교를 대표해서 3인 1조로 구성된 18개 축량팀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축량장비를 활용한 현장 실측을 통해 토털스테이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열린 경쟁을 펼쳤다.

또한 대학부만 진행된 캡스톤디자인 대회에서는 12팀 50명이 참여해 '드론을 활용한 3D 프린팅 작품', '드론을 활용한 지리정보시스템 개발'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심정민 교수(지적부동산과 학과장)는 "이번 경진대회는 공간정보 관련 재학생들에게 창의력 발휘와 자신감 부여를 통한, 기업이 요구하는 성공적인 공간정보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전주비전대학이 4차산업혁명시대 공간정보를 선도하는 특성과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사이버보안학과, IoT 커플링사업 융합 학술제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사이버보안학과(IT소프트웨어보안학과)는 28일 부터 27일까지 이들 간 분교 정보통신관에서 '2019 IoT 커플링사업 융합 학술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호원대 IoT 융합보안 SW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은 전북에서 지원하는 대학산·학·관 커플링사업으로 호원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작업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가 함께 도내 기업체의 수요에 맞춘 융복합 현장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oT 커플링사업 융합 학술제는 매년 사업기간 동안 진행된 융합 프로젝트 및 캡스톤 디자인의 결과물을 전시 및 설명하는 자리로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번 IoT 커플링사업 융합 학술제 기간에는 학과 동문과 교수들을 비롯한 커플링 사업단 참여기업들이 참여했다. 한편, IoT 커플링사업 융합 학술제는 호원대학교 국·보안 융합기술 인력양성 사업단 참여학생들의 프로젝트 결과를 전시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UCC 공모전, 논문 및 포트폴리오 공모전, 전문가 특강, 선배 초청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IoT 커플링사업 융합 학술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부분별로 우수 작품을 선별해 시상함으로써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민원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 진행

전북도교육청은 29일 원주 대한민국 슬레이트마을에서 민원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국민신문고 처리 방법 등 민원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민원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라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지속기관 각 부서별 민원업무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철저 △세제증명 민원 관련 유의사항

△국민신문고민원처리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 처리 없는 민원처리를 당부하고, 발효행 만들기 체험활동 등을 통해 직무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신문고 처리 방법 등 민원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